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변화*

김한규 | 한국관광공사 차장 | khg0811@knto.or.kr

I. 머리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0~21일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시점이 절묘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 숨고르기를 하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양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기지개를 켜려 하던 시점이었다.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지 타협을 찾을지를 두고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중국으로서는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기에 부담을 느끼던 시점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밀접한, 전통적인 선린우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모양새를 원했을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싶었을 것이고, 홍콩으로 쏠리는 국제사회의 이목에서도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지원도 필요했다. 물론 북한의 든든한 우군으로 중국이 있다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점에 중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커다란 전략적 선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제재하의 북한으로선 전략적, 상징적 선물 외에 금번 중국 최고지도자 방북과 관련해 경제적, 실질적 지원 또한 바랄 수밖에 없을 터였다.

* 본고는 김한규,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201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규모 투자나 물자 지원은 불가능했다. 그 틈새에서 나온 것이 관광이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에 앞서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두 나라 민간의 친선적인 래왕을 확대발전시키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인민생활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여 두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¹⁾라고 밝혀 중국인의 북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원의 뜻을 내비쳤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지원의 수단으로 관광을 꼽을 만큼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2010년도를 기점으로 증가하였다.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북한을 방문해 북한을 단체관광목적지(ADS)로 지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뒤 2010년 4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북한 관광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어떻게 전개돼 왔던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는 어떤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인가.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80년대 이후 중국인 북한관광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광분야의 변화를 통해 북중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과 현황

중국인이 북한 인바운드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국인의 방북관광 흐름은 북한의 외래관광 흐름과 그 맥을 함께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외래관광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국제관광박람회에 처음 참가하는 등 다양한 개방 조치를 시도했던 1990년대, 아리랑축전 등 신규 관광소재를 개발하고 남북관광이 본격화됐던 2000년대, 중국인 단체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이를 참고하여 중국인 방북관광의 시기를 구분한다면 19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기는 관광 시작과 탐색, 유치노력과 갈등 속 변곡점 마련, 본격적인 관광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1) 『중앙일보』(2019. 6. 19).

2) 김한규,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0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7, p. 58.

1. 1980~90년대: 관광 시작과 탐색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경관광 형태로 시작됐다. 변경관광이란 중국 측 정의에 따르면 “승인받은 여행사를 통해 조직되고 객적이 이뤄지며 중국 국민과 인접한 국가의 국민이 지정된 변경세관에서 단체로 출입경이 이뤄지고 양국 정부가 결정한 지역과 기간 내에 진행되는 관광활동”³⁾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평양관광으로까지 이어졌다. 변경관광으로 시작된 중국인 북한관광의 1980~90년대 주요 흐름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980~90년대 중국인의 북한관광 관련 주요 흐름

연도	주요내용
1986년	5월 북한 국가관광총국 설립
1987년	7월 북한, 대외개방 9개 관광지역 공포
	11월 중국, 단둥-신의주 1일관광 비준
1988년	4월 변경관광 시작(단둥-신의주 1일관광)
	8월 중국, 중 연지-북 온성 1일관광 동의
	9월 북-중 변경관광지역 확대 논의/이전으로 신의주 1일관광 중단
1989년	6월 중국, 묘향산 등지의 3일관광 원칙상 허용
1991년	5월 중국, 변경관광 범위 묘향산 등 평안북도 전역으로 확대
	12월, 중국, 중 지안(集安)-북 만포 3일관광 승인(1992년 시범 실시)
1992년	3월 평북 여행사-단둥 여행사, '북한관광여행 전문회사' 설립
	7월 변경관광, 평양 관광으로까지 확대
	7월 중국 칭바이허-북한 혜산 1일 관광코스 개통
	9월 북, 태권도대회 이유로 관광 중단
	11월 열차이용 단둥-평양 관광 정식 개통(관광 정상 회복)
1993년	1월 북, 아시아관광의해 지정
	11월 북, 관광합의내용 개정 요구(6개월 협상기간 관광 중단)
1994년	5월 관광재개
1995년	4월 평양축전 개최 및 대규모 중국 관광단 참가
	5/7/9월 3개월 관광 중단
1996년	원산, 해주, 청진 등을 새로운 단체외국인 관광코스로 개발
	12월 7년간 중단됐던 '신의주 1일관광' 재개
1997년	4월 4대 관광지구 지정(나선시대, 두만강지구, 압록강지구, 칠보산지구)
	7월 총국(조선국제여행사) 베이징지사, 북한대사관에서 나와 별도 공간 마련 입주
	8월 두만-나진 열차 개통(주로 화물용)
1998년	3월 북, 철도문제 등으로 단둥지역 관광루트 중단(98년 단둥루트 총 관광기간 2개월 미만)
	7월 관광재개
	9월 중국 여행사 법규위반 이유로 다시 관광 중단
1999년	정상적으로 관광재개 및 진행
	7월 북한 최초 카지노, 나선지구 엠퍼러호텔에 개장(정식개장 2000.10월) 10월 평양 양각도 호텔에 카지노장 개장

자료: 저자 정리(郑江吉, 「丹东市赴朝边境旅游发展研究」, 『世界地理研究』, 제11권 3호, 2002, pp.71~74 편집 및 중국국가여유국 발표자료, 언론보도 취합)

첫 번째 중국관광객의 북한관광은 1988년 4월 18일 시작됐다. 단둥국제여행사가 조직한 첫 단체관광단은 44명으로 구성됐는데, 버스로 압록강대교를 건너 신의주 1일 관광에 나섰다. 신의주 1일 관광 비준문서에는 관광의 범위와 대상, 규모 등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매년 7차례 관광단이 조직될 수 있고 한 차수당 30명, 매년 총 210명이 관광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일 관광만 가능하고 참가 가능 대상은 한국전쟁 참전자, 퇴직간부 및 우수 노동자가 우선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 밖에도 비용(자비여행), 경영(단둥중국국제여행사), 결산(변경무역회사의 수출상품으로 상환), 출입경 증명서류(양국 공안부 협의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⁴⁾

초기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북중 양국 간 밀고 당기기 속에서도 중국 당국이 우려할 정도로 생각 외로 많은 중국관광객이 몰렸다. 국가여유국과 공안부가 1991년 내린 통지문에 따르면 1988년 시작된 변경관광은 1990년까지 8,752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1년 제한인원을 크게 초과한 것이었다. 아울러 1992년 국가여유국이 추가 승인한 변경관광 루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평양까지도 관광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1980~90년대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이나 북한 양국 모두 출입국 통계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측 연구논문 등에서 인용된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 가능하다. 단둥지역의 방북관광객 수 추이는 [그림 1]과 같다.⁵⁾ 1988년 시작된 중국인의 단둥지역을 활용한 방북관광은 1980~90년대에 큰 변동폭을 보였다. 여러 번에 걸친 관광 중단과 재개를 겪으면서 들쭉날쭉한 그래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치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에는 48,000명을 넘었다.

<표 2> 1992년 중국 국가여유국이 추가 승인한 중국인의 북한관광 루트

지역	관광 루트
지린성	훈춘-라진 2일 관광
	투먼-라진 2일 관광
	통장-청진 3일 관광
	창바이-삼지연 3일 관광
랴오닝성	단둥-평양-남포 5일 관광
	단둥-평양-금강산 5일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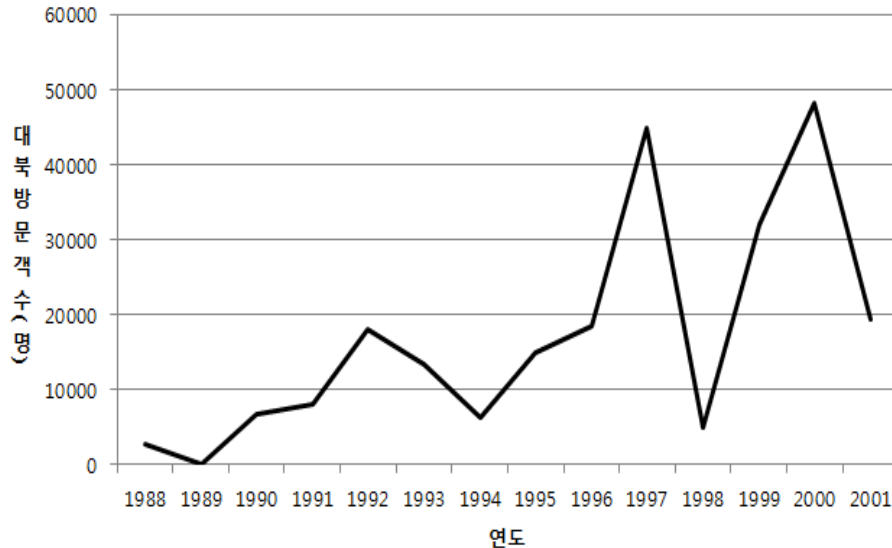
자료: 中国国家旅游局, 『关于扩大边境旅游促进边疆繁荣的意见』, 1992. 7. 16

3) 中国国家旅游局, 『边境旅游暂行管理办法』(2010. 12. 15), 제2조. 이 밖에 야오쑤잉(姚素英)은 "변경관광이란 서로 맞닿아 있는 양국 혹은 지역의 거주민들이 상대방 접경의 외부에 개방돼 있는 변경도시 및 지역에서 서로 단기간의 여행유람을 진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했다(姚素英, 『试谈边境旅游及其作用』, 『北京第二外国语学院学报』, 1998年 第3期, p.18).

4) 中国国家旅游局, 对外经贸部, 『关于似同意辽宁省试办丹东至新义州自费旅游事』, 1987. 11. 4.

5) 관광규모를 파악할 때 순수관광객만 집계하는 경우와 방문객을 모두 관광객으로 집계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다. 다만, 중국 측 자료나 북한 측에서 언급하는 자료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그림 1]의 자료에서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순수관광객 규모일 것으로 유추 해석된다.

[그림 1] 단둥지역 중국인의 방북관광객 수



자료: 郑辽吉(2002), p.72. 재인용

2. 2000년대: 유치 노력과 갈등 속 변곡점 마련

2000년대 북한은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리랑축전이라는 신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중국인 북한관광의 기본적인 주요 흐름은 <표 3>과 같다.

북한은 아리랑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했는데, 프렌지알리 UNWTO 사무총장을 초청하기도 했다. 북한 『로동신문』은 프렌지알리 총장의 반응이라며 “나는 관광업을 전문한 사람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 보고 예술공연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처럼 매우 훌륭하고 독특한 작품은 처음 보았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⁶⁾

물론 이런 유치노력의 핵심 대상에는 중국관광객이 위치해 있다. 그 결과도 2000년대 중국관광객과 전체 외래관광객 수치가 <표 4>에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2년에 방북 중국관광객은 물론 외래관광객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리랑축전 효과라 할 수

6) 『로동신문』(2002. 5. 19).

<표 3> 2000년대 중국인의 북한관광 관련 주요 흐름

연도	주요 내용
2000년	4월 고려항공, 평양-선양 노선 개설
2001년	1월 북, 신의주 1일관광만 진행, 단동의 주요 관광루트 중단
	12월 려승철 북한국가관광총국장, UNWTO 방문
2002년	3월 '전국 관광일꾼 회의' 개최
	4월 아리랑축전 시작/ 관광재개
	5월 프렌지알리 UNWTO 사무총장 북한 방문
	10월 금강산관광지구 지정(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 채택)
2003년	3월 SARS로 인해 주요 관광 모두 중단
	5월 고려호텔 및 양각도호텔에 위성방송 수신서비스 개시
	7월 외국인 북한관광 정상화 (7.11 SARS 비상조치 해제 선언)
	8월 '국제관광 개시' 50주년 행사
	8월 단동-신의주 압록강다리 도보횡단 관광상품 출시
9월 PATA, 국가관광총국 요청으로 북한관광지 답사	
2005년	1월 중, 접경도박문제로 일부 북한관광 여행 금지
	7월 중, 금지했던 자국민의 북한 나선지역관광 재개 허용
2006년	7월 홍수 피해로 아리랑축전 취소
	8월 홍수 피해로 일반 방북관광 중단(상업시찰단 형태 평양 방문만 허용)
	10월 상업시찰 형태 방북관광도 중단
2007년	8월 아리랑축전 기네스북에 등재/ 수해 복구로 아리랑 공연 일시 중단
	11월 청진, 칠보산 관광 중단
2008년	4월 청진, 칠보산 관광 재개
	투먼-남양구 국경도보여행 시작
	7월 금강산 및 개성관광(12월) 중단
	9월 중국, 북한을 중국 공민 단체출경관광 목적지로 결정
2009년	9월 중국, 선양에 조선국제여행사 사무실 개설 허용
	북중수교 60주년 기념 '북중 우호의 해'
	4월 단동-신의주 관광 2006년 이후 3년여 만에 재개
	10월 '중국 관광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행실시방안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자료: 저자 정리(郑辽吉, 2002, pp.71~74 편집 및 언론보도 취합)

<표 4> 방북 중국관광객 수 및 외래관광객 수(2002~09년)

(단위: 천명,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국관광객(a)	121	44	103	69	46	51	26	24
외래관광객(b)	194	49	126	108	85	92	68	36
비율(a/b*100)	62.4	89.8	81.7	63.9	54.1	55.4	38.2	66.7

주: 1) 2009년은 1~10월까지의 수치

2) 상기 관광객 수는 순수관광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 李仲广, 「朝鲜旅游产业的情况与赴朝旅游开发建议」, 『中国旅游报』, 2010. 3. 8 내용 편집

있는데, 북한 당국의 당초 유치목표에는 못미치지만 북한 외래관광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치노력은 이후 관광 외적인 요인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도박문제, 홍수 등 자연재해, 북핵실험으로 인한 관계경색 등으로 2000년대 후반 방북관광 규모는 오히려 1990년대보다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중국관광객의 방북관광 흐름은 일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 국민의 단체출경관광목적지 국가(Approved Destination Status: ADS)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북중수교 60주년이자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된 2009년에 양국은 ‘중국 관광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행 실시방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간에 왕즈파(王志发) 중국국가여유국 부국장과 강철수 북한관광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를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여유국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는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북한관광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의 중국관광 유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중국의 단체관광객 여행허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2018년 현재 129개국인데, 북한은 105번째로 지정됐다.⁷⁾ 단체관광 목적지로 지정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여행사가 모객하는 형태의 단체관광을 할 수 없었고 북한에서 초청하는 방식이나 대표단 방문 형식의 단체관광만이 가능했다.⁸⁾

3. 2010년대: 본격적인 관광 확대

북한이 ADS 국가로 지정된 이후 2010년 4월 12일 395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산중(祝善忠) 중국국가여유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처음으로 북한관광에 나섰다. 북한은 당시 김도준 국가관광총국장이 직접 환영연회를 개최할 정도로 그들을 크게 반겼다. 뒤이어 중국은 각지에서 관광열차를 조직하고 북한을 대단위로 찾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24일에는 베이징, 저장성, 광저우 등지에서 모객된 중국관광객 421명을 태운 관광열차가 평양으로 향했다. 이러한 중국관광객의 2010년대 북한관광 흐름은 <표 5>와 같다.

북한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교통수단인 철도 이외에도 항공편을 신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중간의 항공편은 베이징-평양, 선양-평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2010년대에는 상하이(2011. 7월), 엔지(2012. 7월), 정저우(2015. 4월), 칭다오 및

7) 中国国家旅游局, 『已正式开展组团业务的出境旅游目的地国家(地区)』
(http://www.cnta.gov.cn/ztwz/cjyzt/gtl/201507/t20150708_723265.shtml 접속일: 2018. 4. 19).

8) 『세계일보』(2010. 3. 9).

<표 5> 2010년대 중국인의 북한관광 관련 주요 흐름

연도	주요 내용
2010년	4월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공식 시작
	5월 창바이현-해산시 변경관광 시작
	7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외지인 대상 방북 통행증 발급 업무 5년 만에 재개 (연지, 투먼, 훈춘, 룡징, 허룽 등 5개 지역)
	12월 평안북도 관광국장, 단둥/다렌/선양 순회 관광자원 설명회 개최
2011년	4월 북-중-러 3국 환형관광 시작
	4월 룡징(산허통상구)-칠보산 관광코스 신설
	6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금강산국제여행사 신설)
	6월 훈춘(취안허통상구)-라선(원정리) 자가용 관광 첫 개통 허룽-삼지연(백두산)-해산 관광, 평양으로 이어지는 데 합의
	7월 평양-상하이 항공노선 개설
	7월 훈춘(사튀즈)-(경원)온성 1일 관광, 1991년 이후 20년 만에 재개
	10월 투먼-남양-칠보산 관광전용열차 개통
2012년	4월 자동차 관광상품 재개(지린성-나선시 자가용관광 보충협약 3월 체결)
	7월 평양-연지 전세기 노선 개설
	10월 나진-원정리 포장도로 개통
	10월 연지-훈춘-취안허 통상구-원정리-나선 정기노선버스 운행 시작
	10월 북-중 백두산공동개발합작의향서체결(북-중국 지린성 창바이산관리위원회)
2013년	1월 단둥-동림 1박 2일 코스 개척(2013년도에는 실제 상품화되지 못함)
	4월 중국, 북한관광 일시 중단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13개 경제개발구 지정<온성섬, 신평 관광개발구 포함>)
	5월 중국, 북한관광 재개
	8월 국가관광총국 창립 60주년 행사
	12월 마식령 스키장 완공
2014년	1월 북(라선)-중(훈춘)-러(하산) 3국 지방정부 새해맞이 행사 첫 공동 개최
	4월 지안-만포 관광열차 재개통. 본 노선으로 평양 5일 관광 진행
	4월 룡징-회령/청진/경성 관광 시작 투먼-칠보산 관광열차 재개(2013년 미운행)<회령-청진-경성-명천역(칠보산)>
	5월 투먼-남양 자전거여행 시작
	7월 경제개발구 6곳 추가 지정(청수관광개발구 포함)
	8월 평양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9월 지린성-나선시 관광국, 나선시 일대 자가용관광보충협약 체결
	10월 단둥-동림 2일 관광 정식 개시
	10월 북,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차단 위해 외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 중지 (입국 외국인은 21일간 격리조치 시행)
2015년	3월 '에볼라 차단' 해제로 외국인 북한관광 재개 (에볼라 방역으로 4월 및 8월 국제태권도 행사 취소)
	4월 허난성 정저우-평양 전세기 노선 개설
	4월 양강도 삼지연군에 무봉국제관광특구 지정
	5월 선양-평양 잇는 직행 관광열차 운행
	6월 지린성-라선시 관광합작 MOU 체결(신규 북중 두만강 일일관광노선 도입 합의)
	7월 평양 순안공항 신청사(제2청사) 완공, 준공식
	7월 연지-백두산 직행관광버스 노선 개통
	12월 신의주압록강안관광지 조성, 공식 개장

<표 5>의 계속

연도	주요 내용
2016년	3월 대북제재 여파로 중국 허둥시의 무봉국제관광특구 투자 중단
	3월 중국 춘추항공사 상하이-평양 노선취항계획 무기한 연기
	4월 한국 정부, 방북관광 취급 중국 여행사 대상 방한비자 대행권한 취소
	5월 칭다오/지난-평양 전세기 노선 운항
	7월 타이위안-평양 전세기 노선 운항
	7월 신의주압록강안관광지 반나절 관광 시작
	9월 취안허 통상구-원정리 통상구 연결 신두만강대교 개통
2017년	3월 단둥-평양 전세기 노선 취항
	4월 중국국제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잠정 중단(4.17~5.4)
	4월 중국, 북방관광 일부 중단 논란
	9월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 취소
	9월 중국, 120일 내 자국 내 북한기업 모두 폐쇄 명령(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관련)
	11월 중국국제항공 평양 노선 무기한 중단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 1차 방중(베이징), 북중정상회담
	4월 중국관광객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32명 사망-김정은 위원장 직접 방문 위로
	4월 중국, 북중접경 바이산-혜산, 백두산 신규 관광상품 승인
	5월 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다렌)
	6월 중국국제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재개
	6월 청두-평양 직항 전세기 노선 추진 불발
	6월 김정은 위원장 3차 방중(베이징)
	7월 시안-평양 전세기 노선 고려 중 중단
	7월 북중 쌍목봉 임시통상구 이용, 연변 안투-북 삼지연 코스 개설(승인)
	8월 북 고려항공, 평양-선양 노선 주 2회에서 3회로 임시 증편
	8월 8.11~9.5까지 단체여행 중단 중국여행사에 통보
9월 새로운 집단체조(빛나는 조국) 시작(~10.27)	
9월 평양-다렌 전세기 운항,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베이징)
	3월 북, 1일 외국인 입국자 1천명으로 제한
	5월 중국 취안허 및 지안 통상구, 방북 관광객 편의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 도입
	5월 훈춘 평창-라선 연결 보트 당일 상품 출시
	6월 시진핑 주석, 방북(노동신문 기고)
	6월 선양-평양 노선 주 3회에서 4회로 증편
	6월 북, 새로운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공연 시작(공연 관람, 비자 발급에 필수)

자료: 저자 정리(국내외 언론보도 및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 조사인터뷰 종합).

지난(2016. 5월), 타이위안(2016. 7월), 단둥(2017. 3월), 다렌(2018. 9월) 등에서 평양으로 가는 전세기 노선이 개설되었다. 이 밖에도 시안, 하얼빈, 창춘, 난징 등에서도 평양행 전세기를 운항한 바 있고, 2019년 6월에는 선양노선을 증편했다.

전세기는 일반적으로 정기편이 없는 지역, 정기편을 이용해 관광 일정을 짜기에는 불편한 지역이나 시기에 활용되는데, 이는 성수기 등 특정 시기에 그만큼 북한관광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전세기 노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접객 여행사와 중국의 송객 여행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9년 중국 관광단의 방북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해 12월 북한이 중국에 통보한 접객 여행사는 12개인데,⁹⁾ 북한은 그 이후에도 신규 여행사를 설립하고 있고, 이들 개별여행사들은 상호 간에 가격경쟁은 물론 거래선 확보 등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¹⁰⁾

2010년대 중국관광객의 북한관광은 변경 지방에서도 매우 활발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 중단됐던 여러 종류의 변경관광 루트가 재개되고 새로 개설되기도 했다. 창바이현-혜산시 코스(2010년), 룡징-칠보산 코스, 훈춘-라선 자가용 관광, 허룽-삼지연-혜산 코스, 훈춘-온성 코스, 투먼-남양-칠보산 관광열차(이상 2011년), 지안-만포 관광열차, 룡징-회령/청진/경성 관광, 투먼-남양 자전거 여행, 단둥-동림 2일 관광(이상 2014년), 단둥-신의주 반나절 관광(2016년), 바이산-혜산 백두산관광, 안투-삼지연 관광(이상 2018년), 훈춘 팡촨-라선 보트 당일 여행(2019년) 등이 재개되거나 신규 개설됐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 ‘덩안여우’(登岸游)로 불리는 단둥-신의주 반나절 관광은 매우 높은 인기를 끌어 7개월만에 이용객 수가 2만명을 넘기도 했다.¹¹⁾

2010년대 중국인의 방북관광 규모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중국과 북한 양국 모두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국 국가여유국 자료를 통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방북 중국관광객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표 6>과 같다.

<표 6> 2010~13년 방북 중국관광객 수

(단위: 천명,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중국관광객	131천명	194천명	237천명	207천명
전년 대비 증가율		48%	22%	-13%
중국 전체 출국관광 증가율		22%	18%	18%

주: 상기 수치는 여유국의 통상 자료 기준 고려 시, 관광목적 포함 모든 형태의 방문객 수치일 것으로 추정
자료: 중국 국가여유국

2010년 중국 단체관광객 목적지 국가로 지정된 이후 방북 중국관광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도는 194천명으로 전년 대비 48%나 급증했고, 2012년도에도 237천명으로 22%나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 수치는 중국 전체 아웃바운드 국가 가운데 19위에 해당하는 적은 수치이지만, 2011~12년도의 성장세는 중국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

9) 中国国家旅游局, 『朝鮮指定接待中国旅游团的旅行社名单』, 2010. 3. 10.

10) 김원규, 『북한 외래관광 조직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구조 변화의 반영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5, pp.68-71.

11) 『中国新闻』(2017. 1. 12).

는 수치다. 특히 2011년도의 방북 중국관광객 증가율은 47.87%로, 이는 말레이시아, 태국 다음에 해당하는 수치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패키지 연계코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일국가 가운데 북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¹²⁾

이후 방북 중국관광객의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상승세는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러나 2016년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그에 맞물려 한국 정부가 방북관광을 취급하는 중국 여행사 대상 방한비자 대행권한을 취소하면서 북한관광을 판매하는 중국 여행사들은 상당수 줄어들게 되었다. 실제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중국 내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북한관광상품을 찾기 힘들어졌다.

2017년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중국도 이에 동참하였으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남북 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미중 무역전쟁 등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북중관계가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호전돼 2018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실제 저자와 인터뷰를 한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단둥에서 평양으로 가는 국제열차 기차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 신의주에서 국내 열차를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로 인해 2019년 3월에는 평양 숙박시설 등 관광수용태세가 부족해 1일 관광객을 1천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2019년도에도 방북 중국관광객의 빠른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III. 관광 중단과 재개: 관광 주도권의 변화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인 북한관광의 흐름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국제적 문제 등 관광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3장에서는 이런 흐름과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북한 주도 관광 중단

중국인의 북한관광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가 간의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과는

12) 신용석, 『남북관광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28.

13) 단둥국제여행사 관계자는 “북한관광이 올해(2014년)처럼 호황을 누리긴 처음”이라고 밝혔다(『노컷뉴스』, 2014년 8월 19일).

다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여러 차례 관광이 중단, 재개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관광이 중단됐던 사례는 <표 7>과 같다.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1988년 시작되자마자 같은 해 변경관광지역 확대문제로 관광이 일부 중단됐다. 1993년도에는 관광합의내용 개정 요구로 관광이 중단됐다. 당시 북한은 지불방식 개선과 종합서비스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현물납부형식에서 화폐납부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로 구상무역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경화소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 성격을 띤 우호가격제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면서 경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중국은 1992년 새로운 북중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에 구상무역에서 경화결제방식으로서의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관광분야에서 구상무역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¹⁴⁾

<표 7> 중국인의 북한관광 중단 사례

연번	중단 기간	주도	성격 구분	중단 원인/배경	비고
1	'88~'90년	북	경제적	변경관광지역 확대 문제 (지역 확대 일부 합의)	신의주 1일 관광 중단 '90.3월 장쩌민 총서기 방북
2	'92.9~'11월	북	정치 군사적	태권도대회 명목 ('92.8.2 한중 국교수립 발표)	
3	'93.11~'94.5월	북	경제적	관광합의내용 개정요구	6개월 협상완료 후 재개
4	'95.5·7·9월	북	-	-	3개월간 관광 중단
5	'98.3~7월	북	경제적	철도문제 등으로 단동관광 중단	'98년 단동루트 관광기간 2개월 미만
6	'98.9~12월	북	경제적	중국 여행사 법규위반 명목	
7	'01년	북	경제적	중, 북의 관광목적지구가지정 요구 거부	신의주 1일 관광 이외 단동출발 주요 관광루트 중단
8	'03.3~7월	북	자연적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문제	
9	'05.1~7월	중	경제적	관광객 도박 등 문제	엔벤-라선지역 관광 중단. '06년 이후 단동지역도 중단
10	'06.8~12월	북	자연적	홍수 피해	일반 방북관광 중단
11	'06.10~12월	중	정치 군사적	1차 북핵실험 (고위급교류중단)	일반관광이외 다른 형태 관광도 중단
12	'13.4~5월	중	정치 군사적	북 3차 핵실험	'13.2.12 3차 핵실험 '13.3.7 UN결의 2094호
13	'14.10~'15.3월	북	자연적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 목적	
14	'16~'17년	남중	정치 군사적	방북관광 취급 여행사 감소	한국 정부, 방북관광여행사 방한비자대행권한 취소
15	'17.11월~	중	정치 군사적	미 트럼프 대통령 방중 ('17.11.6~7)	방북관광 중단('17.11월초)/ 라오닝성, 지린성 이외 지역 방북관광 중단('17.11.28)
16	'18.8~9월	북	기타	시진핑 주석 방북 가능성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북

자료: 저자 정리(2001년 이전 관광 중단 사례 郑江吉(2002) 중심, 이후 기간은 한국·중국 언론보도 및 중국 여행업체 동향 등 참고)

14) 한편, 현실적으로 북한은 당초 부족의 경제문제로 인해 현물납부를 선호하지만 중국 측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상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화폐납부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현물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박양,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1998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관광공사, 1998, p.7. 참조.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검역을 이유로도 관광을 중단해 왔다. 1992년에는 태권도 대회 개최를 이유로 관광을 중단했는데, 이는 그해 8월 24일 한중국교수립에 대한 불만 표출로 중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3년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으로 중단했다. 이밖에 겨울철 전력사정 등의 물리적 제약조건, 중요한 정치행사 등으로도 관광을 중단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의 중국관광객 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의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시점에 관광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군사적 배경으로 북한이 주도해서 관광을 중단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성격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경제적 요인 5건, 정치군사적 요인 1건, 자연적 요인 3건, 미파악 또는 기타 2건으로 경제적 요인이 50% 가까이 차지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치군사적으로 빈번하게 갈등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 관광 중단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군사적 이유일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관광분야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북중관광 중단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중관광분야에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북중관광을 조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입장, 즉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을 필요로 하는 입장을 북중관계를 자리매김 할 때 적절히 활용해 왔는데 이런 양상이 관광분야에서도 그대로 노정됐다. 북한으로서는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여 북한이 필요로 했던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북한이 북중관광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에는 북중관광이 중국 전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3성의 랴오닝성과 지린성이라는 일부 지역과 관련된 것 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중국 중앙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일정 수준까지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을 것이다. 반면, 지방정부로서는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어려웠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중국 송객여행사는 다수인 반면 북한 접객여행사는 조선국제여행사 중심의 소수였기에 중국 내부의 경쟁은 치열했고 협상 통제권은 북측 여행사가 쥐게 됐다. 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졌던 셈이다.

15) 북한의 '계산된 모험주의'라 할 수 있다(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243~273).

2. 중국 주도 관광 중단

북중관광의 주도권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일련의 관광 중단 및 제재의 흐름을 살펴보면 확연히 중국 주도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뤄졌던 관광 중단은 총 10건이었는데, 북한이 주도한 것은 5건이었다. 북한이 주도한 사례 5건 중에서도 경제적 요인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자연적 요인 등이었다. 2000년대 이전 북한의 관광 중단 배경이 대부분 경제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북한은 관광 주도권을 잃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주도로 관광 중단이 이뤄진 사례는 <표 7>에 따르면 5건(한국 주도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묵인 포함)인데 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정치군사적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한 중단은 4건으로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한 건도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정치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부분이라는 점이 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북중관계는 북핵실험 이후 과거의 ‘비대칭적 보호자’ 게임 관계에서 ‘대칭적’ 게임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¹⁶⁾ 중국은 이렇게 주도권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관광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한 관광 중단은 대부분을 차지한 정치군사적 원인에 의한 관광 중단은 사실상 북핵실험과 대부분 관련이 있다. 이는 <표 8>을 통해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중국 정부의 강한 압박은 관광분야에서도 이뤄졌다. 1차 핵실험 이후 북중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2년이나 중단되는 등 갈등과 경색국면이 지속됐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중국인의 북한관광에도 반영된 것이다.

북핵실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관광 중단은 2013년에도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뒤인 4월 10일 ‘중국 여행사와 관광객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로 인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힌 데 이어, 베이징 및 상하이 등 각 지방 여유국은 관할 여행사들에 북한관광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내렸으며, 단둥과 옌벤 지역 여행사들은 안전문제 등으로 모두 관광을 중단했다.¹⁷⁾

2016년의 4차 및 5차 핵실험 당시에는 명시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한국 정부가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때 중국 정부가

16) 주경환, 이동영, 「북한 핵실험 전후 북-중관계의 변화: 비대칭적 보호자 게임에서 다양한 대칭적 게임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1호, 대한정치학회, 2008, pp.16~18.

17) 『中国旅游报』(2013년 4월 12일); 『中华网』(2013년 4월 13일). 자체 취재 및 한국 언론 인용 등의 형태로 보도했다.

〈표 8〉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자국민 방북관광 관련 대응

차수	시점	중국 정부의 자국민 방북관광 관련 대응	UN 제재 및 핵심 골자
1차	2006. 10. 9.	관광 중단(산업시찰형태 평양 방문도 중단)	[결의안 1718호(2016. 10. 14.)] ·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2차	2009. 5. 25.	중단하지 않음/ 북한을 단체관광목적지국가로 공식 지정	[결의안 1874호(2009. 6. 12.)] · 화물검색,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금융·경제 제재
3차	2013. 2. 12.	관광 중단(4~5월/ 일부 여행사는 9월 이후에까지 중단 지속 반응)	[결의안 2094호(2013. 3. 7.)] ·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의심 북한 금융거래 금지 · 무기전용가능성 품목, 수출입 거래 중단 의무
4차	2016. 1. 6.	한국 정부, 방북관광 중국여행사 방한비자대행권환 취소 (중국 정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음)	[결의안 2270호(2016. 3. 2.)] · 석탄/철/철광 북 수출 첫 원칙금지(민생목적 제외) · 항공유, 인도주의적 목적 제외 판매금지
5차	2016. 9. 9.		[결의안 2321호(2016. 11. 30.)] · 석탄 수출 규모/금액 상한선 설정 · (2371호, 석탄수출 전면 금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6차	2017. 9. 3.	관광 중단 (랴오닝/지린성 이외 지역 중단)	[결의안 2375호(2017. 9. 11.)] · 유류, 제재 첫 포함(원유공급 동결, 정유제품 상한선) · 섬유/의류 제품 수출 전면 금지

자료: 저자 정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묵시적 공감대 속에서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뤄지는 9월 이후에는 중국은 자국민의 북한관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으나 두 달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방북관광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11월 말 중국 국가여유국은 각 성시자치구여유국을 통해 랴오닝성 및 지린성 이외 지역의 방북관광 중단 조치를 시달했다. 6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경해지고 촘촘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해 오는 미국 등의 대북압력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방북관광을 지렛대로 활용한 북한 압박은 단기적인 조치 위주로 취해져 왔다. 또한 최소한 북중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방북관광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곤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중국 지방정부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압박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큰 틀에서 볼 때 중국의 4세대 지도부가 중국의 최우선 대외관계 고려 사항인 대미관계를 고려해 정책 전환을 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미중관계, 대북한 인식(북한 체제안정 여부 및 북중관계), 과거 정책의 학습 등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할지 아니면 북한의 체제안정을 우선할지를 결정하여 대북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는데,¹⁸⁾ 그

18)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권 4호, 2013. 12, pp.195~196.

도출된 결과에 따라 대북압박과 지원의 선택지를 들어 왔던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관광부문을, 활용한 것은 북한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됐다는 점과 중국의 방북관광이 북한의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외화획득 부분에서 중국관광객의 소비액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핵심은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규모일 것이므로 중국은 그 약한 고리를 활용해 무기화한 것이다. 즉, '관광의 무기화'이다. 관광의 무기화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주요 무기인데,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의 다오위다오 분쟁, 대만과의 양안 문제 등에서 적극 활용해 왔다.

한편, 중국은 2차 핵실험 이후에는 특별한 관광 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ADS 국가로 확정했다. 당시 중국은 채찍보단 당근에 무게 중심을 뒀는데, 여행허가국으로 지정하는 프로세스를 최종 마무리한 것도 이런 당근 제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유화책을 사용한 배경으로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다시 주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불안정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유화 정책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중국은 2차 핵실험 이후 2009년에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해 부총리급 2회, 외교, 국방, 치안 관련 장관급 인사는 5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전례 없는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펼쳤다.¹⁹⁾

IV. 전망 및 결론

중국인의 북한관광 규모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것인가. 공식 통계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이상 언론 보도와 민간 기업들의 기대 섞인 전망에 기대어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북중관계와 국제정세가 지속 또는 개선된다면 개연성이 충분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과 시진핑 주석의 중국 사이 관광 '브로맨스'는 어떻게 이어질까. 브로맨스는 필요의 산물이다. 각종 미사여구가 동원되지만 결국 중국은 북한이

19) 이성봉,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본 중국과 북한 관계(2000~16년)」, 『민족연구』, 제70호, 2017. 9, pp.181~184.

필요했고 북한은 중국이 필요했기에 가능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있어 미국을 ‘건드리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커졌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터졌지만 난항을 겪을 때마다 중국이란 뒷배가 있음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싶어 했다. 핵심적으로 이런 배경하에 2018~19년 북중 관광 브로맨스는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려졌다. 2009년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방북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 2019년은 일종의 2009년 데자뷔인 셈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앞서 보았듯이 관광의 주도권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필요가 어떻게, 얼마나 이어지는지, 북한은 어떻게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그 브로맨스의 결말이 나올 것이다. 중국은 또한 무기화된 관광이 꽤 쓸모 있다는 것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상황이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조이고 푸는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북중관계에서 관광은 독자 영역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국제적 변수의 하위 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조직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2호, 2015.
- _____, 「중국인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 _____, 「평양 관광자원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사회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 연구』, 제20권 1호, 2017.
- 박양,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1998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관광공사, 1998.
- 신용석, 『남북관광 현황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이성봉,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본 중국과 북한 관계(2000-2016년)」, 『민족연구』, 제70호, 2017.
- 이영학,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권4호, 2013.
- 주장환·이동영, 「북한 핵 실험 전후 북-중관계의 변화: 비대칭적 보호자 게임에서 다양한 대칭적 게임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1호, 2008.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 『노컷뉴스』, 「단둥 여행사 “올해 중국인 북한관광, 사상 최대 호황」, 2014. 8. 19.
- 『로동신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매우 훌륭하고 독특한 작품: 세계관광기구 총서기 기자들과 회견」, 2002. 5. 19.
- 『중앙일보』, 「[전문] 시진핑, 북 노동신문 첫 기고 “북중 70년간 한 배 탔다”」, 2019. 6. 19.
- 『세계일보』, 「중, 4월 12일 북 단체관광 개시...북한, 외화벌이 ‘숨통」, 2010. 3. 9.
- 『RFA』, 「북한관광열기에 북한 행 열차표 대란」, 2019. 5. 24.
- 李仲广, 「朝鲜旅游产业的情况与赴朝旅游开发建议」, 『中国旅游报』, 2010. 3. 8.
- 朝鮮民族遺産國際旅行社, 『神秘朝鮮深度體驗旅遊系列路線推介會參考資料』, 2018. 7. 24.
- 姚素英, 「試談邊境旅遊及其作用」,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 第3期, 1998.

郑辽吉, 「丹东市赴朝边境旅游发展研究」, 『世界地理研究』, 第11卷3期, 2002. 9.
中国国家旅游局, 『边境旅游暂行管理办法』, 2010. 12. 15.
_____, 『朝鲜指定接待中国旅游团的旅行社名单』, 2010. 3. 10.
_____, 『关于扩大边境旅游促进边疆繁荣的意见』, 1992. 7. 16.
_____, 『已正式开展组团业务的出境旅游目的地国家(地区)』.
中国国家旅游局·对外经贸部, 『关于似同意辽宁省试办丹东至新义州自费旅游事』, 1987.
11. 4.

『中国新闻』, 「丹东赴朝鲜登岸游游客达到2万人次」, 2017. 1. 12.
『中国旅游报』, 「延边赴朝旅游暂停」, 2013. 4. 12.
『中华网』, 「中国赴朝鲜旅游业务被叫停 各大旅行社陆续停止发团」, 2013. 4. 13.